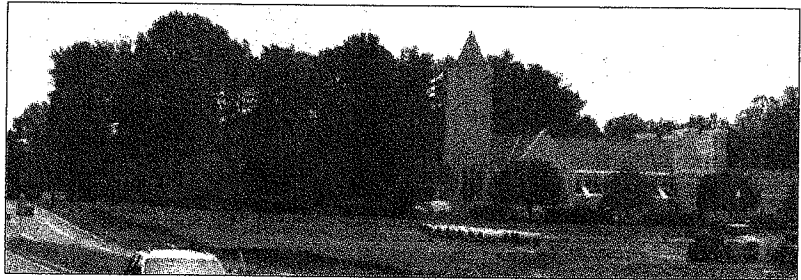


“유대인 같은 커뮤니티센터 만들자”

풀뿌리 운동 첫 결실 맺었다

프린스턴 커뮤니티센터
58만불 들여 부지 매입
오는 2015년 완공 목표



프린스턴코리아커뮤니티센터(KCCP)가 들어설 예정인 프린스턴 인근 웨스트원저 부지.

뉴저지주 프린스턴 지역 한인들이 후세를 위해 추진해 온 커뮤니티센터 건립이 첫 결실을 맺었다.

프린스턴 코리아 커뮤니티 센터(KCCP) 건립추진위원회는 지난 10일 프린스턴 인근 웨스트원저에 있는 6.4에이커 부지를 58만 달러에 매입하기로 계약했다. 클로징은 오는 8월이다.

부지는 프린스턴 주요 간선 도로인 루트1에서 0.5마일가량 떨어진 곳으로 메도로드 선상에 위치해 있다. 웨스트원저 타운이 이미 커뮤니티센터용으로 지정해 놓은 곳이며, 주변에는 공원과 축구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추진위는 2007년부터 커뮤니티센터 건립 운동을 벌여 그동안 약 100만 달러(약정액 포함)를 모았다. 앞으로

100만 달러를 추가로 모금, 오는 2015년 센터를 완공할 계획이다.

이중희 회장은 “한인사회에도 유대인 커뮤니티센터와 같은 곳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아 추진해 온 꿈 같은 사업이었는데 현실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며 “5000달러 기부를 약정한 50여 명의 창립위원들을 중심으로 지역 한인들이 다 함께 정성을 모은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추진위는 앞으로 더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7일 기금 모금 골프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9월 17일에는 로렌

스빌에 있는 라이더 대학에서 제5회 추석맞이 모금잔치를 연다. 센터 건립 예정 부지에서도 피크닉이나 바자 등을 열 계획이다.

이 회장은 “센터가 완공되면 현재 자체 건물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린스턴 한국학교나 프린스턴 한겨레문화연구회 등 한국 문화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후세에게 더 늦기 전에 커뮤니티센터라는 공동 유산을 물려주는 일에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동희 기자

dhkim@koreadaily.com